

# Rotterdam Philharmonic Orchestra

The logo for Lotte Concert Hall, featuring a stylized red and white wave graphic above the text.

LOTTE  
CONCERT HALL

# Rotterdam Philharmonic Orchestra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LOTTE  
CONCERT HALL



지휘 | 라하브 사니 협연 | 김봄소리(바이올린) 연주 |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b단조 '비창'

2023. 6. 19 MON 7:30PM 롯데콘서트홀

주최 | 롯데문화재단

## PROGRAM

지휘 라하브 사니 Lahav Shani, Conductor  
바이올린 김봄소리 Bomsori, Violin  
연주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Rotterdam Philharmonic Orchestra



요하네스 브람스  
Johannes Brahms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Op. 77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77

I. Allegro non troppo  
II. Adagio  
III. Allegro giocoso, ma non troppo vivace

36'

Intermission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Pyotr Ilyich Tchaikovsky

교향곡 6번 b단조, Op. 74 '비창'  
Symphony No. 6 in b minor, Op. 74 'Pathétique'

I. Adagio - Allegro non troppo  
II. Allegro con grazia  
III. Allegro molto vivace  
IV. Adagio lamentoso

45'

\*본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임 지휘자  
Chief Conductor

## 라하브 샨니 Lahav Shani

로테르담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인 라하브 샨니는 야니크 네제 세갱의 뒤를 이어 2018년 9월 오케스트라 역사상 가장 젊은 상임 지휘자로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2020/21시즌 주빈 메타에 이어 이스라엘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으로 취임했고 2015년 5월 빈 심포니와의 데뷔 연주 이후 2016년 1월 오케스트라 유럽투어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2017/18 시즌 빈 심포니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임명되었다. 또한 베를린 슈타츠키펠레와 베를린 슈타츠오퍼를 넘어 여러 공연장에서 꾸준히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샨니는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런던 심포니, 로열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보스턴 심포니,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파리 오케스트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로열 스톡홀름 필하모닉, 밤베르크 심포니,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등을 객원 지휘했다.

1989년 텔아비브 출생으로 6세에 한나 샬기에게 처음으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 텔아비브 부흐만 메타 음대에서 아리에 바르디를 사사한 샨니는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음대에서 지휘(사사: 크리스티안 에발트)와 피아노(사사: 파비오 비디니)를 공부했다. 학생 시절 바렌보임의 조언을 받기도 한 그는 2013년 밤베르크에서 열린 구스타프 말러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2016년 로테르담 필하모닉과 지휘와 동시에 피아노 협연으로 데뷔 무대를 가졌고 2개월 후, 2018 시즌을 시작으로 공식적으로 차기 상임 지휘자에 임명되었다.

피아니스트로서 샨니는 2018년 7월 베를린 볼레즈 잘에서 리사이틀 데뷔 무대를 선보였으며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등 여러 오케스트라를 피아노 협연과 동시에 지휘했다. 실내악 연주자로서 그는 액상프로방스 페스티벌, 쾰른 필하모니, 베르비에 페스티벌 등에 참여했고 2019년 워너 클래식 레이블로 르노 카뮈송, 키안 솔타니와 함께 녹음한 차이콥스키와 드보르자크의 피아노 트리오 작품 음반을 발매했다.





바이올린  
Violin

## 김봄소리 Bomsoori

김봄소리는 2021년 2월 세계적인 레이블 도이치 그라모폰 전속 아티스트로 계약하며 같은 해 6월 지안카를로 게레로 지휘의 NFM 브로츠와프 필하모닉과 함께 도이치 그라모폰에서의 첫 솔로 음반 <바이올린 온 스테이지>를 발매했다.

제62회 ARD 국제 음악 콩쿠르 수상자인 김봄소리는 이외에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장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하노버 요아힘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몬트리올 국제 음악 콩쿠르, 센다이 국제 음악 콩쿠르, 그리고 제15회 비에냐프스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등 수많은 해외 콩쿠르에서 상을 거머쥐며 전 세계적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파비오 루이지, 얀 판 츠베덴, 마린 알솅, 바실리 페트렌코, 파블로 헤라스 카사도, 한누 린투 등의 지휘자들과 함께했으며 뉴욕 필하모닉,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모스크바 심포니, 몬트리올 심포니, 바르샤바 내셔널 필하모닉, 하노버 NDR 라디오 필하모닉,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뮌헨 챔버 오케스트라 등과 같은 세계 최정상의 오케스트라들과 협연 무대를 비롯하여 빈 무지크페라인 골든홀, 뉴욕 카네기홀과 링컨 센터 등 세계 주요 공연장에서 리사이틀 무대를 선보였다.

2022/23 시즌에는 얀 판 츠베덴 지휘의 뉴욕 필하모닉, 바실리 페트렌코 지휘의 로열 필하모닉, 라이언 밴크로프트 지휘의 BBC 웨일즈 내셔널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이어 나갔고 바르셀로나 심포니, 굴베키안 오케스트라와 데뷔 무대를 선보였다. 또한 파비오 루이지와 덴마크 내셔널 심포니로부터 재초정을 받았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리사이틀도 성료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와 프라이부르크에서 바젤 챔버 오케스트라와, 뮌헨에서 바이에른 방송 챔버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선보였으며 바덴바덴에서 리사이틀 무대를 가졌다. 다가오는 6월에는 한국에서 라하브 사니 지휘의 로테르담 필하모닉과의 데뷔 무대가 예정되어 있다.

김봄소리는 서울대 음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을 사사했으며, 이후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실비아 로젠버그와 로날드 코프스를 사사해 석사 학위와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취득했다.

현재 삼성문화재단과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시카고 스트라디바리 소사이어티의 후원으로 1725년 크레모나산 가르네리 델 제수 "엑스-몰러"를 연주하고 있다.

연주  
Orchestra

##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Rotterdam Philharmonic Orchestra

1918년에 설립되어 유럽 최정상 오케스트라들 사이에서 고유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로테르담 필하모닉은 오케스트라만의 힘이 넘치는 사운드로 차별화되는 여러 음반과 다양한 관객층을 확보하며 호평을 받아왔다.

오케스트라 설립 초기 1930년부터 수석 지휘자 에두르트 플립제와 함께 오케스트라를 유럽 정상의 오케스트라로 발돋움하는 초석을 마련했고 1970년대에 들어서는 장 푸르네와 에도 드 바르트 지휘 아래 국제 무대에서 명성을 얻었다. 발레리 게르기예프의 취임으로 오케스트라는 새 시대와 함께 전성기를 맞이했으며 이는 야니크 네제 세갱, 2018 시즌부터 상임 지휘자로 임명된 라하브 샬리의 임기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의 주공연장인 로테르담 더 뮐런 콘서트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 여러 국가, 도시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다. 2010년부터 로테르담 필하모닉은 파리 상젤리제 극장 상주 오케스트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무대로 투어, 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다수의 젊은 세대를 포함해 연 15만 명에서 20만 명의 관객을 만나고 있다.

도이치 그라모폰과 BIS레코즈 레이블과 계약을 맺은 로테르담 필하모닉은 최근 EMI와 버진 클래식 레이블에서도 음반을 녹음했다. 또한 오케스트라의 역사적인 앨범들의 재발매를 진행하는 로테르담 필하모닉 빈티지 레코딩스라는 오케스트라 자체 레이블을 설립했고, 메디치 TV를 통해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주기적으로 송출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기간 동안 디지털 매체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했는데 그중 베토벤 합창 교향곡은 300만 뷰를 달성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 ROSTER



## Chief Conductor

Lahav Shani

## Honorary Conductor

Yannick Nézet-Séguin

## Assistant Conductor

Bertie Baigent

## Artist in Residence

Daniil Trifonov

## First Violin

Igor Gruppman *\*Concert Master*

Marieke Blankestijn *\*Concert Master*

Quirine Scheffers  
Hed Yaron Mayersohn  
Saskia Otto

Arno Bons  
Mireille van der Wart  
Cor van der Linden  
Rachel Browne  
Maria Dingjan  
Marie-Jose Schrijner  
Noemi Bodden  
Petra Visser  
Sophia Torrenga  
Hadewijch Hofland  
Annerien Stuker  
Alexandra van Beveren  
Koen Stapert

## Second Violin

Charlotte Potgieter  
Cecilia Ziano

Frank de Groot  
Laurens van Vliet  
Tomoko Hara  
Elina Hirvilammi-Staphorsius  
Jun Yi Dou  
Bob Bruyn  
Eefje Habraken  
Majja Reinikainen  
Wim Ruitenbeek  
Babette van den Berg  
Melanie Broers

## Viola

Anne Huser  
Roman Spitzer

Maartje van Rheeden  
Galahad Samson  
Kerstin Bonk  
Lex Prummel  
Janine Baller  
Francis Saunders  
Veronika Lenártová  
Rosalinde Kluck  
Léon van den Berg  
Olffe van der Klein

## Cello

Emanuele Silvestri  
Eugene Lifschitz

Joanna Pachucka  
Daniel Petrovitsch  
Mario Rio  
Ge van Leeuwen  
Eelco Beinema  
Carla Schrijner  
Pepijn Meeuws  
Yi-Ting Fang

## Double Bass

Matthew Midgley  
Ying Lai Green

Jonathan Focquaert  
Harke Wiersma  
Robert Franenberg  
Arjen Leendertz  
Ricardo Neto



## Flute

Juliette Hurel  
Joséphine Olech

Desiree Woudenberg

## Flute / Piccolo

Beatriz Baião

## Oboe

Remco de Vries  
Karel Schoofs

Anja van der Maten

## Oboe / Cor Anglais

Ron Tijhuis

## Clarinet

Julien Hervé  
Bruno Bonansea

*Vacancy*

## Clarinet / Bass Clarinet

Romke-Jan Wijmenga

## Bassoon

Pieter Nuytten  
Lola Descours

Marianne Prommel

## Bassoon / Contra-bassoon

Hans Wisse

## Horn

David Fernández Alonso  
Felipe Santos Freitas

Wendy Leliveld  
Richard Speetjens  
Laurens Otto  
Pierre Buizer

## Trumpet

Alex Elia  
*Vacancy*

Simon Wierenga  
Jos Verspagen

## Trombone

Pierre Volders  
Alexander Verbeek

Remko de Jager

## Bass Trombone / Contra-Bass Trombone

Rommert Groenhof

## Tuba

Hendrik-Jan Renes

## Timpani/Percussion

Danny van de Wal

Ronald Ent  
Adriaan Feyaerts  
Martijn Boom

## Harp

Charlotte Sprenkels

“The Rotterdam Philharmonic Orchestra would like to express its gratitude to the City of Rotterdam and the Port of Rotterdam as the main sponsors of this concert tour.”



# PROGRAM NOTE

요하네스 브람스  
Johannes Brahms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Op. 77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77

1878년, 브람스가 남긴 단 하나뿐인 바이올린 협주곡이다. 브람스는 1877년 여름, 사라사테가 연주하는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의 초연을 지켜보고, 바이올린 협주곡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된다. 창작력이 뜨겁게 불타오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작곡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작품은 브람스의 작품답게 교향악적 요소가 가득하며, 언뜻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닮은 것처럼 보였다.

1악장은 비올라와 첼로 그리고 바순의 유니즌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독주 바이올린이 등장하기 전까지 앞으로 나올 주제들을 미리 예고하는 역할도 한다. 이 작품은 1악장부터 유독 전원 풍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은데, 그의 또 다른 D 장조 작품인 교향곡 2번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교향곡 2번은 브람스의 '전원 교향곡'으로도 불리는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둘러 쌓인 브람스의 여름 피서지에서 작곡되었기 때문에 그곳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음악으로 대변한다. 그리고 1악장에선 조바꿈이 마법처럼 이루어지는 순간이 많은데, 브람스의 숙련된 작곡솜씨를 확인해 볼 수 있다.

2악장은 각 섹션들과 독주자의 아름다운 에피소드다. 오보에의 노래를 시작으로 협연자의 대답까지 이어지며,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어지는 마지막 악장은 분위기가 급변해 집시풍의 음악으로 시작한다. 그의 피아노 협주곡 1번 3악장과 닮아 있는 악장이다. 오케스트라와 독주자는 치열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독주자가 어떻게 오케스트라와 대등하게 균형을 맞추며 클라이막스를 이루는지를 잘 보여준다.

브람스는 이 작품을 완성하는데 바이올리니스트 요셉 요아힘의 큰 도움을 받았다. 요셉 요아힘은 시대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브람스의 예술적 동반자로도 평가 받는 인물이다. 브람스는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하면서 요셉 요아힘에게 독주 악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구했다. 브람스에게 가장 편안한 악기이자, 가장 자신 있는 악기는 피아노였지만, 요셉 요아힘의 도움을 받아 거대한 바이올린 협주곡을 완성시키게 된다. 베토벤과 브루흐 그리고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더불어 독일을 대표하는 바이올린 협주곡은 그렇게 탄생했다.

작품은 1879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브람스의 지휘와 요셉 요아힘의 연주로 초연된다. 작품의 작곡은 브람스의 몫이었지만, 이를 멋지게 연주해 작품의 진가를 드러낸 건 요셉 요아힘이었다. 작품이 진정한 의미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물론 초연 후 작품은 기나긴 수정작업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곳곳에서 관객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브람스 스스로가 작품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요셉 요아힘과 바이올린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다툼이 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둘의 파트너십은 오랫동안 지속된다. 훗날 브람스는 요셉 요아힘과 함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을 협업하기도 한다.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b단조, Op. 74 '비창'  
Pyotr Ilyich Tchaikovsky Symphony No. 6 in b minor, Op. 74 'Pathétique'

1893년에 작곡된 작품으로, 차이콥스키의 작품 중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작품에는 '비창'이라는 부제가 붙었는데, 그 부제처럼 극도로 비극적이고 음울한 작품이다. 평생 우울증을 앓았던 작곡가의 내면이 음악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1악장은 콘트라베이스가 아주 여린 음을 연주하고, 바순이 그 위로 음울하게 노래하며 시작된다. 희망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음악이 진행되는데, 그 비극이 주체할 수 없이 커질 무렵, 새벽이 오듯 2주제가 연주된다. 차이콥스키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인 매혹적인 선율이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을 낸다. 이후 잠잠해졌던 비극적인 정서가 주체할 수 없이 오케스트라 전체로 번져 나가고 클라이막스를 이룬다. 1악장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슬픔의 표현을 결코 절제하지 않는다. 클라리넷은 고요히 아름다운 선율을 재현하고,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으며 1악장은 마무리된다.

2악장은 러시아 민요에서 따온 춤곡으로 시작된다. 우아한 선율이 귀에 먼저 들어오지만, 그 색깔은 결코 밝지 않다. 팀파니의 리듬을 타고 퍼지는 심장 박동 소리는 어딘가 불안함을 머금고 있다. 이어지는 3악장은 작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다. 활발하면서 또 광폭한 이 음악은 스키르초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악장이다. '타란텔라' 주제라고도 불린다. 타란텔라는 아주 빠르게 연주되는 이탈리아 춤곡을 뜻하는데, 멘델스존 교향곡 4번 '이탈리아'의 마지막 악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춤곡이다. 제시된 주제들이 반복되며 음악은 서서히 규모를 키워가고, 마지막에 이르러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듯 강렬하게 마무리된다.

마지막 악장은 절망과 눈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 '탄식조로 느리게'라는 지시어처럼 가장 먼저 현악기에 의해 비극적인 주제가 제시된다. 기나긴 시간을 지나, 차이콥스키가 내린 마지막 결론이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은 이전 교향곡들과는 달리 조용히 마무리되는데, 마치 심장이 천천히 멈춰가듯 저음현이 연주되며, 서서히 박동을 멈춘다.

작품은 1893년 10월, 차이콥스키 자신의 지휘로 러시아 음악협회의 연주회에서 이루어진다. 지나치게 작품이 어두운 탓에 청중과 평론가의 반응은 애매모호했지만, 정작 차이콥스키는 이 작품이 가진 정서에 만족했다. 작품의 초연이 있고 9일 후 차이콥스키가 세상을 떠나, 더욱 비극적인 교향곡으로 남았다.



© Guido Pijper

피아노라는 소우주,  
오케스트라라는 대우주의  
소리 연출자

# 라하브 샨니

네덜란드 교향악단들의 역사는 유럽 어느 나라에 비해 그리 길지 않다. 동쪽의 독일과 북쪽의 영국이 일찍이 오케스트라의 전통을 확립한 것에 비해 네덜란드의 근대적 악단 만들기와 전통 쌓기는 대략 19세기 말에 시작되었다. 오늘날 '전통'과 '정통'의 악단으로 손꼽히는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가 창단된 것도 1888년, 즉 19세기 말이다.

후발 주자인 그들에게 없는 것이 '전통'이었다면, 가진 것은 '도전'이었다. 그들은 역사와 그 깊이에 대한 부러움보다 '차별'과 '차이'를 통해 오케스트라 문화를 만들어나갔다. 역사학자 부르크하르트의 말처럼 모든 것이 시간과 역사의 수압으로 뒤덮인 유럽 내에서, 네덜란드 악단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도전과 파격의 사도들을 포디움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그렇다 보니 지휘자 선출에 있어서 다른 유럽권보다 자유롭고, 지휘자들에게는 기회의 나라이기도 했다.

이러한 내력은 오늘날 네덜란드 오케스트라계에 모종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젊은 지휘자들이 현재 그러가고 있는 네덜란드 오케스트라계의 지도를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 던컨 워드(1989~)가 남네덜란드 필하모닉(Philharmonie Zuidnederland)을, 로렌초 비오티(1990~)가 네덜란드 국립 오페라를 이끌고 있다. 네덜란드 방송교향악단은 여성 지휘자 카리나 카벨라키스(1981~)가 이끌고 있다. 대부분 1980년대 생들로 젊은 전사들이다. 그리고 로테르담 필하모닉에는 라하브 샨니가 있다.



## | 피아노와 지휘 공부 '사이'에서

샨니는 1989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출생했다. 부친은 이스라엘 음악계에도 잘 알려진 마이클 샨니로 첼리스트이자 합창 지휘자로 활동했고, 샨니의 형제 롬 샨니도 색소포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이처럼 샨니의 가정에는 음악이 있었고, 집 밖으로 나가면 인근 공연장에서 이스라엘 필하모닉의 무대가 종종 펼쳐졌다. 텔아비브에서 성장한 샨니는 6세가 되면서 한나 살기에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부흐만-메타 음악학교에서 아리에 바르디를 사사했다(아리에 바르디는 손열음, 박종해, 김다솔 등의 스승이다). 이 학교는 이스라엘 필과 협력하여 자국의 재능 있는 학생들을 성장시켜나갔다. 그렇다 보니 샨니의 주변에는 이스라엘 필이 있었고, 피아니스트의 길을 목표로 하면서도 지휘자의 세계에 매료될 수 있었다. “음악적인 결정을 내리는 이 직업에 매력을 느꼈고, 그것이 곧 저에게 맞는 방식이라 생각했습니다.” 연주자란 주관적인 생각을 소리 내는 사물(악기)에 녹여 넣고, 지휘자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녹여 넣는 직업이지 않던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샨니는 독일로 유학해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음대에서 피아노와 함께 지휘를 공부했다. 그리고 2010년 21세의 그는 피아니스트로, 더블베이스 단원으로, 보조 지휘자로 이스라엘 필과 함께 투어를 떠나기도 했다.

## | 로테르담 필과, '확인'하고 '확신'한 순간

샨니가 지휘계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것은 24살이던 2013년, 밤베르크에서 열린 말러 지휘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였다.(2004년 두다멜이 우승했던 콩쿠르로, 샨니의 우승 당시 공동 2위는 데이비드 단츠마이어(현 오레곤 심포니), 텅취 창(현 보훔 심포니)이었다.)

지휘 공부에 매진했던 20대에는 피아노와 살짝 거리가 생기기도 했다. 그는 “피아노를 살짝 옆으로 밀어 놓았다”라고 했는데, “그런 나를 다시 피아노 앞에 앉힌 것은 바렌보임이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피아노와 지휘 사이에서 성장 가능성을 가늠해나갔던 그는 2015년 플루트 3중주 음반(메르디앙 레이블 CDE84624)을 내놓기도 했고, 빈 심포니의 수석 객원지휘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16년 6월 17일과 19일, 로테르담 필과의 첫 만남을 갖게 된다. 샨니는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을 지휘했고,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K466의 협연도 맡았다. 전임(前任)

지휘자 야닉 네제 세갱의 공백을 메울 후임자를 찾고 있던 로테르담 필과 샨니의 만남은 서로의 음악관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함께 해도 좋다는 '확신'이 서는 순간이었다. 그가 어느 인터뷰에서 밝힌 당시의 심정에서 그 느낌이 잘 전해진다. “작곡가와 연주자에 관한 음악적 호기심과 악단의 열정이 너무나도 잘 맞물린 순간이었고, 이 느낌이 우리 사이에서 잘 작동했습니다. 인터미션 때 저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이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해 여름이 가기 전, 악단은 그에게 2018/19 시즌을 함께 열자고 제안했다. 그의 나이 27살 때였다. 이번 내한 공연이 더욱 흥미롭게 다가오는 이유는 샨니와 로테르담 필이 첫 호흡을 맞춘 2016년 6월 19일로부터 정확히 7년이 지난 후라는 점(6월 19일)과, 당시 지휘한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을 올린다는 점이다.

## | 샨니의 관철력, 로테르담 필의 유연성

로테르담 필이 포디움에 내세웠던 지휘자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곳이 '젊은 수장'의 보금자리라는 것을 금세 알게 된다. 전임(前任) 야닉 네제 세갱(1975~)이 수석 지휘자가 되어 2008/09 시즌을 열었을 때 그의 나이는 33세였다. 야닉 이전에 1995~2008년을 이끈 게르기예프(1953~)도 취임 당시 40대 초반이었다.

악단은 게르기예프를 통해 러시아 명작들을 유입하고 쌓아가며 불씨를 댕겼고, 야닉의 거침없는 사운드 조적력으로 모던한 감각을 갖춰나갔다. 이러한 계보 끝과 새로운 시작에 샨니가 서 있다. 이처럼 로테르담 필은 악단의 전통은 쌓되, 포디움의 연령대를 상대적으로 낮춰 파격의 젊음의 사도를 내세우고 있다.

브루노 발터는 지휘자란 태어나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과정에 재능은 물론 지성, 매력, 건강한 신체, 수많은 행운, 야망 등이 깃들어야 한다고 한다. 무엇보다 '젊음'이야말로 건강한 신체와 야망의 아이콘이 아닌가. 샨니는 취임 후 자신만의 젊은 무기를 정확히 내세울 줄 알았다. 특히 2020년 연초에 팬데믹으로 음악계가 멈췄을 때도 그는 동력을 늦추지 않았다.







“우리는 관객을 위한 연주회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스포츠와도 같기에 계속하지 않으면 근육과 두뇌는 감퇴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아이디어로 극복하기로 했습니다. 단원들 사이의 거리 두기 때문에 좌석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중 단원들을 원형으로 배치하고 저와 피아노를 가운데 두었습니다.” 지휘자만 바라보던 단원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원의 한 가운데는 샨니와 피아노가 있고 그는 프로코피예프의 협주곡 3번을 지휘하고 협연했다. “음악가들이 연주자이자 서로를 위한 관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서로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들을 수 있었어요.”

샨니는 로테르담 필의 특징으로 “유연성”을 꼽는다. “로테르담 필은 그들만의 사운드와 작품에 관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흐나 브루크너 혹은 21세기 음악 등의 작품을 연주할 때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최선의 소리와 올바른 스타일을 찾아갑니다. 저는 첫 시즌부터 그 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로테르담 필만의 유연성은 샨니가 개척하고 싶은 레퍼토리와 음악적 확장에 큰 힘이 되고 있다.

### 지휘자-피아니스트 계보의 신인류

‘지휘자 샨니’를 논하는 데 있어, ‘피아니스트 샨니’도 빼놓을 수 없다. 그가 피아니스트로서 굽직한 콩쿠르에 입상한 적은 없지만,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라디오 프랑스 필 등과 협연·지휘를 맡기도 했다.

올해는 바쁜 일정을 쪼개 4월에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로 이어지는 피아노 독주회를 갖기도 했다. 프로코피예프의 소나타 1-3-4-6-7번 등 ‘세 프로코피예프’로 구성된 무대였다.

2019년 발매한 음반(에라토 레이블 9029552541)에는 차이콥스카-드보르자크 피아노 3중주를 담기도 했다. 르노 카뮈송(바이올린), 키안 솔타니(첼로)와 함께 한 녹음으로 ‘그라모폰’지로부터 “세 음악가는 풍부한 아이디어를 통해 대화하고 드라마의 감각을 유지한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샨니는 오늘날 지휘자의 새 계보에도 속하며, 동시에 아시케나지(1937~), 바렌보임(1942~), 플레트네프(1957~) 이후 한동안 등장하지 않고 있던 지휘자-피아니스트 계보의 신인류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피아노는 샨니에게 가장 가깝고도 오랜 시간 함께 해 온 음악적 도구이다. 이 악기를 통해 피아노의 역사를 새로 쓰고, 오케스트라의 마음을 읽기도 한다. “악기(피아노)에 대한 경험은 지휘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원들에게 발전을 위한 특별한 개선을 제시할 적에 그들이 연주하고 있는 대목과 상태를 저 역시 연주자로서 상상하고 미리 체감해볼 수 있거든요.” 샨니의 스승 아리에 바르디에게 배웠던 예뎀 브로프만(1958~)도 샨니를 “피아노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음악가”라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그는 로테르담 필과 함께 팬데믹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2020년 발매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과 교향곡 7번 음반(위너 클래식 9029517768)에서도 피아노와 함께 했다. 2020/21 시즌부터 음악감독직을 맡은 이스라엘 필과의 첫 음반(아반티 레이블 AVA10662)도 아르헤리치와 함께 한 베토벤 협주곡 2번과 라벨 협주곡을 담았다.

샨니가 2016년 9월 서울시향의 객원지휘자로 내한했을 적에 당시에는 로테르담 필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나갈 예비적 존재이자 기약된 자로서 주목받았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샨니의 행보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로테르담 필과 첫 시즌을 열었던 2018년에는 어린 시절의 음악적 고향과도 같은 이스라엘 필의 음악 감독으로 임명되어 2020/21 시즌부터 활동 중이다. 1981년부터 종신 음악감독으로 활동해오던 주빈 메타(1936~)는 악단의 전통을 손자뻘인 1989년생의 샨니에게 물려준 셈이다. 또한 올해 1월에는 뮌헨 필하모닉과 2026/27 시즌부터 함께 하는 수장으로도 임명되었다.

피아니스트로서 관객에게 ‘옆’모습을 보여주고, 지휘자로서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를 통해 21세기에 새로 열릴 음악적 우주의 ‘앞’을 내다볼 수 있다. 하여, 이번 내한 공연은 그의 가능성과 호흡을 목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다.(인용한 라하브 샨니의 인터뷰 문장들은 ‘바흐트랙’, ‘WRTI’, 빌렘 분의 인터뷰 등을 참조했다.)

글 | 음악 칼럼니스트 송현민



#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 미래를 예약한 거장들과 함께 일구어온 진취와 과단의 역사

네덜란드 제2의 도시이자 유럽 최대의 항구도시인 로테르담. 북해로 통하는 요충지에 자리하여 예로부터 ‘유럽의 관문’으로 일컬어져 온 로테르담은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문화·예술적으로도 풍요로운 도시이다. 가장 돋보이는 부문은 건축인데,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복원보다는 변화를 선택했고, 그 결과로 네덜란드에서는 드문 마천루들과 혁신적인 건축물들이 들어섰다. 오늘날 로테르담은 ‘네덜란드의 건축 수도’, ‘현대건축의 성지’로 불리고 있다. 스포츠 부문으로 시선을 돌리면 명문 축구 클럽 페예노르트가 홈구장 ‘더 카유프(De Kuip)’를 주무대로 활약 중이고, 미술 부문에서는 브뤼헬, 렘브란트, 반 고흐 등이 포함된 방대한 수장품과 파격적인 전시 방식으로 유명한 ‘보이만스 판빙어인 미술관’이 돋보인다. 아울러 음악 부문도 빼놓을 수 없는데, 암스테르담의 로열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와 더불어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명문 교향악단인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RPO’)는 도시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에서 두 번째 가는 교향악단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비록 명성과 전통에 있어서는 베를린 필, 빈 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로열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에 미치지 못 하지만, 연주 기량은 못지않게 준수하며 네덜란드 악단다운 견실함과 유연성으로 무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적인 항구도시에 등지를 들고 있는 악단답게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마인드까지 장착하여 창단 초기부터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실력 있는 단원들을 선발해왔다. 홈그라운드인 2,200석 규모의 콘서트홀을 갖춘 복합공연장 ‘더 뉘런(De Doelen)’이고, 암스테르담에 있는 네덜란드 국립 오페라(DNO)의 오케스트라 로스터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RPO는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위치에 도달했을까? 이제부터 역대 상임지휘자 가운데 특히 돋보였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악단의 역사를 간략히 조망해보도록 하자.



© Guido Pijper

## Ⅰ 플립저의 비전

RPO의 창단연도는 1918년이다. 그 해 로테르담의 몇몇 음악가들이 '예술의 상호 함양을 위한 전문 음악가들의 모임(협회)'을 발족시킨 것이 출발점이었다. 유료회원제로 운영된 이 모임은 사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음악을 함께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초대 음악감독은 로테르담 내 음악학교 두 곳의 매니저였던 빌럼 펠처(Willem Feltzer, 1918~28)였고 알렉산더 슈물러(Alexander Schuller, 1928~30)가 그 뒤를 이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추어 앙상블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다 전문 오케스트라의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제3대 수석지휘자인 에두아르드 플립저(Eduard Flipse)에 의해서였다.

1930년부터 1962년까지, 무려 32년 동안 악단을 이끈 플립저는 한 마디로 'RPO의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는 부임 당시 재정적·예술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았던 악단을 위해 '악기 기금'을 설립하여 새로운 악기 및 비품 구입과 악단 운영을 위한 자금을 조달했고, 뚜렷한 음악적 비전을 가지고 '정규 교향악단' 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플립저 임기 초기의 RPO는 요한 바흐나 르, 빌럼 파이퍼, 알폰스 디펜브록 등 네덜란드 작곡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현대음악을 적극적으로 다루며 입지를 다져 나갔다. 1935년에는 1300석 규모의 콘서트홀인 '더 뮐런'이 개관했고 시의회에서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RPO는 바야흐로 반석 위에 올라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규악단으로 전환한지 10년이 지난 1940년, 10주년 기념공연을 치른 며칠 뒤에 나치 독일이 네덜란드 점령을 개시하면서 악단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다. 폭격으로 도시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면서 악단의 공연장도 파괴되었고 그 안에 있던 악기들과 악보들, 자료들도 대부분 망실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플립저와 단원들은 주저앉지 않았다. 네덜란드의 다른 악단들이 자선 콘서트를 열어 자금을 모으고 장비와 악보를 지원해준 덕에 예정했던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나치 점령기의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규제 속에서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갔다. 폭격에서 살아남은 얼마 안 되는 건물 중 하나인 '여왕 교회'가 임시 공연장으로 사용되었다. 전쟁이 끝나자 플립저는 '더 뮐런'의 재건을 추진하는 한편, 나치 치하에서는 금지되었던 유대인 작곡가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그 중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제6번과 제8번은 음반으로 제작되었는데, 이 녹음들은 플립저 시절 RPO의 충실한 기량을 증언하

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특히 1954년 3월 7일 로테르담의 아호이 홀에서 11개의 합창단에 브라반트 오케스트라까지 가세하여 녹음된 '천인 교향곡'은 훗날 '말러의 사도'를 자처했던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RPO를 네덜란드의 메이저 교향악단으로 성장시킨 플립저는 1973년에 세상을 떠났다.

## Ⅱ 더 바르트의 열정

플립저가 추진했던 '더 뮐런'의 재건 사업은 1966년에 결실을 맺었다. 그 해 5월 18일에 진행된 개관 기념 콘서트에서는 플립저의 후임인 독일 지휘자 프란츠 파울 데커(Franz Paul Decker, 1962~67)가 지휘봉을 들었다. 데커는 그 이듬해 악단을 떠났고 그 후임자는 프랑스의 명장 장 푸르네(Jean Fournet, 1968~73)였다. 그리고 푸르네의 뒤를 이은 네덜란드의 신진 에도 더 바르트(Edo de Waart, 1973~79)와 함께 RPO는 일대 도약의 전기를 맞는다.

1941년 암스테르담 태생인 더 바르트는 로열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의 오보에 주자로 경력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휘에 관심이 더 많았던 그를 악단의 상임지휘자 베르나르드 하이팅크가 격려했고, 그는 1964년 뉴욕에서 열린 드미트리 미트로폴로프 국제 지휘 콩쿠르에 참가하여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다. 그 대회 부상인 뉴욕 필하모닉(레너드 번스타인)의 부지휘자로 수습기간을 보내고 귀국한 뒤에는 하이팅크의 부지휘자로 일했고, 1967년부터는 '네덜란드 관악 앙상블(NWE)'을 맡아 지휘했다. 음반 녹음을 포함한 NWE와의 작업이 주목받으면서 더 바르트의 지휘자 경력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1968년에 RPO의 러브콜을 받아 푸르네와 포디움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1973년부터는 마침내 RPO를 단독으로 이끌게 되었다.

RPO의 수석지휘자로 취임하면서 더 바르트는 거주지도 암스테르담에서 로테르담으로 옮겼다. "그 도시와 그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면 거기에 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훗날 '오케스트라 빌더(builder)'라는 칭호까지 얻게 될 뛰어난 지휘 솜씨로 악단의 기량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필립스(Philips) 레이블과 계약을 맺고 '더 뮐런'에서 음반 녹음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프로코피예프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필두로 R. 슈트라우스, 모차르트, 차이콥스키, 생상스 등 더 바르트의 역량과 RPO의 견실한 기량, 더 뮐런의 균형 잡힌 음향이 잘 어우러진 양질의 음반들

이 속속 발매되어 호평을 받았고, 덕분에 RPO의 대내외적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무소르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음반은 '정직하고 신선한 해석'과 '장쾌하면서 종량감 있고 동근 사운드'로 극찬을 받았고, 임기 말에 완성한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전집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활발하고 완성도 높은 음반 작업은 그의 후임인 데이비드 진먼 시절에도 지속되었고, 어느덧 RPO는 네덜란드를 넘어 국제무대에서 주목받는 악단으로 거듭났다.

## Ⅲ 게르기예프와 네제세갱

더 바르트가 퇴임한 뒤로 RPO는 한 동안 데이비드 진먼(David Zinman, 1979~82), 제임스 콘론(James Conlon, 1983~91), 제프리 테이트(Jeffrey Tate, 1991~95) 등 영미권 지휘자들을 맞아들이 다분히 자족적인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1995년, RPO는 러시아에서 날아온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자와 함께 새로운 황금기로 진입한다.

그 지휘자는 바로 발레리 게르기예프(Valery Gergiev, 1955-2008),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 키로프(마린스키) 극장의 예술 감독이었다. 옛 소련 해체 후 서방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었던 게르기예프는 RPO를 그 전초기지로 삼았다. 흡사 주술적 마력을 지닌 듯한 그 특유의 강렬하고 개성적인 지휘 스타일은 빈, 런던, 뉴욕, 밀라노, 잘츠부르크 등지에서 그랬던 것처럼 로테르담의 청중들도 매료시켰고, 게르기예프는 나날이 늘어나는 스케줄에 쫓기는 와중에도 13시즌 동안 RPO를 이끌고 정기연주회와 각종 이벤트를 소화하고 투어를 다녔다. 취임 이듬해부터 매년 '로테르담 필하모닉 게르기예프 페스티벌'도 열었다. 게르기예프의 임기 중에 RPO는 다시금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고, 게르기예프의 명성이 높아지는 만큼 악단의 위상도 올라갔다. 2007년 런던 심포니의 수석지휘자로 취임한 그가 이듬해 퇴임하자 RPO는 '명예 지휘자' 칭호를 선사하여 그와의 인연을 기리고 이어나갔다. (다만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 RPO는 게르기예프와의 모든 협력 관계를 단절한다고 발표했다.)

2006년 말 RPO 단원들은 만장일치로 캐나다 출신의 야닉 네제-세갱(Yannick Nézet-Séguin, 2008~18)을 차기 수석지휘자로 선출했다. 그 무렵 네제세갱은 몬트리올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는 한편 구스타보 두다멜, 안드리스 넬손스와 더불어 지휘계의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으며 국제무대에서도 보폭을 넓혀 나가고 있었다. 2008년 가을부터 임

기를 시작한 네제세갱은 전임자가 구가했던 '황금기'를 연장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새로운 콘서트 시리즈를 출범시켰고 국외 투어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게르기예프 시절에 다소 위축됐던 음반 작업(BIS, DG)도 활성화시켰다. 아울러 악단의 앙상블을 제고하는 일에도 힘썼는데, 전임자가 덧입힌 러시아적 색채를 적당히 덜어내면서 악단의 DNA에 내재된 프랑스로의 방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튜닝을 진행했던 것. 그 결과 RPO는 고유의 선명하고 정교한 앙상블, 폭넓은 다이내믹 레인지와 다양한 음색의 팔레트를 한층 세련되게 가다듬었는데, 그런 악단의 개성은 '밝고 섬세한 프랑스 오케스트라와 보다 어둡고 중후한 독일 오케스트라의 중간'이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네제세갱은 RPO를 맡은 이후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 및 오페라하우스들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했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음악감독으로 취임한 2018년에 RPO를 떠났다. 물론 지금도 '명예 지휘자'로서 그와 악단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RPO의 수석지휘자인 라하브 샨니(Lahav Shani)는 네제세갱의 후임으로 2018년 가을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샨니 역시 전임자가 그랬던 것처럼 단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는데, 그 결정이 2016년 여름, 그가 27세 나이로 로테르담에 데뷔한지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RPO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신속하고 과감한지 돌아보게 된다. 돌이켜보면 더 바르트도 26세 때 RPO에 발탁되었고, 네제세갱은 33세 때, 게르기예프는 42세 때 이 악단을 맡았다. 이쯤 되면 시장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내다보는 악단원들의 선구안이 범상치 않아 보인다. 샨니 역시 RPO를 맡은 후로 이스라엘 필하모닉, 뮌헨 필하모닉과 추가로 계약을 맺으며 성가를 높이고 있는 상황. 다만 젊은 지휘자는 가능성만큼 불확실성도 큰 법이다. 과연 샨니가 황금기를 지속하려는 RPO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이번 내한공연은 그 여부를 가능해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IN HOUSE 2023 롯데콘서트홀 ARTIST

meets 미디어 아트

series II 윤소영 X 차진엽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 차진엽

2023. 6. 23 FRI 7:30PM

롯데콘서트홀

R 7만원 | S 5만원 | A 3만원



공연정보확인



◇ 빈-베를린 체임버 오케스트라 ◇  
Kammerorchester Wien-Berlin

2023. 7. 4 TUE 7:30PM 롯데콘서트홀

R 14만원 | S 11만원 | A 8만원 | B 5만원



공연정보확인

# 2023 클래식 레볼루션

레너드 번스타인  
LEONARD BERNSTEIN

## CLASSIC REVOLUTION

Artistic Director | Andreas Ottensamer

### CALENDAR

# 8

August

11 FRI 7:30PM	12 SAT 5PM	13 SUN 5PM	14 MON 7:30PM	15 TUE 5PM
<p>서울시향의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p> <p>지휘   안드레아스 오펜잠머 협연   레이첼(Vn)</p>	<p>성남시향의 브람스 교향곡 제4번</p> <p>지휘   이승원 협연   에스더 유(Vn) 김유빈(Fr)</p>	<p>한경arte필의 말러 교향곡 제4번</p> <p>지휘   홍석원 협연   황수미(Sop)</p>	<p>체임버 뮤직 콘서트 I.</p> <p>트리오 콘 브리오 코펜하겐 홍수진(Vn) 홍수경(Vc) 앤스 엘베케어(Pf)</p>	<p>체임버 뮤직 콘서트 II.</p> <p>안드레아스 오펜잠머(Cl) 윤홍천(Pf) 레이첼(Vn) 조진주(Vn) 김사라(Vla) 한재민(Vc) 조정민(Db)</p>
17 THU 7:30PM	18 FRI 7:30PM	19 SAT 5PM	20 SUN 5PM	
<p>인천시향의 브람스 교향곡 제1번</p> <p>지휘   이병욱 협연   홍수진(Vn) 홍수경(Vc)</p>	<p>수원시향의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5번</p> <p>지휘   최희준 협연   신창용(Pf)</p>	<p>KBS교향악단의 드보르작 교향곡 제7번</p> <p>지휘   지중배 협연   윤홍천(Pf)</p>	<p>경기필의 번스타인 심포닉 댄스</p> <p>지휘 &amp; 협연   안드레아스 오펜잠머(Cl)</p>	

2023. 8. 11 FRI - 8. 20 SUN 롯데콘서트홀

오케스트라 콘서트 R 9만원 | S 7만원 | A 5만원 | B 3만원  
실내악 콘서트 R 6만원 | S 4만원 | A 3만원

www.classicrevolution.net



공연정보확인

# THANK YOU

롯데문화재단은  
아래 기업의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2023년  
후원사

- 롯데케미칼
- 롯데쇼핑
- 롯데건설
- 롯데정밀화학
- 롯데렌탈
- 롯데물산
- 롯데칠성음료
- 롯데지주
- 롯데웰푸드
- 7-ELEVEN
- 롯데글로벌로지스
- 롯데캐피탈
- HOTEL LOTTE
- 롯데홈쇼핑
- 롯데정보통신
- 롯데알미늄
- UNI QLO LifeWear
- LOTTE GRS
- Canon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 대흥기획

롯데문화재단